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8년도 표어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라!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요10:10)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아모스서 강해

여호와의 날

(아모스 3:1-8)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여호와의 날은 어두움의 날이며 피할 수 없는 날이며 소망이 끊어지는 날입니다. 빛 되신 예수님이 안계시니 심판을 받을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어두움의 날입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날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무서운 세 가지 죄에 대해 말씀합니다.

1. 이스라엘의 세 가지 죄

(1) 도덕적인 부패

아모스 5장에는 특별히 법정의 불의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날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반체제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모스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사회악을 무섭게 질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종교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 중에도 세상의 상식선에조차 이르지 못하는 도덕적인 부패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상은 종교인들을 향하여 조그만 도덕성도 없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당하고 말지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덕을 세우지 못하는 행동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늘 예민해야 합니다.

(2) 위선 죄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삼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 내어 선포하러무나”(4:4-5).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드리고, 십일조를 드리며 수은제와 낙헌제를 드리며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서 꼬박꼬박 제물을 드리며 자신들을 종교심이 깊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제물을 토해버리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술로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 앞에서는 가장 의로운 것처럼 행동하곤 합니다.

(3) 하나님을 찾지 않은 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4:11).

예배자들은 도덕적인 부패와 위선에 더하여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명목상 신자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들의 봉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라고 핑계는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이름이나 유익을 위해 봉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날은 그들에게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2.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5:20).

아모스 선지자는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위선적이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도래할 것을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이 공평과 진리를 추구했다면 여호와의 날은 그들에게 빛의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여호와의 날은 어둠의 날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예물이나 거룩한 의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한 사랑과 순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자기 사랑으로 변했고, 불순종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공의와 공법도 결핍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날과 같으면서도 그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성도들에게 즐거운 날이요 기대할만한 날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부활의 날에 대해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이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이것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습니다(살전 4:16-17).

그러나 여호와의 날은 어두움의 날이며 피할 수 없는 날이며 소망이 끊어지는 날입니다. 그 날에는 태양도 달도 별도 없어질 뿐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날, 하나님이 없는 날입니다. 빛 되신 예수님이 안계시니 심판을 받을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어두움의 날입니다.

이 날은 고독한 날입니다. 빛 안에 있을 땐 서로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지만 어두움에서는 아무 것도 볼 수 없고 오직 고독만 있을 뿐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피할 수 없는 날입니다. 죄를 범한 후에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날은 완전히 소망이 끊어지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만 가진 종교인들, 곧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 또 죄로 인해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그만 죄에도 민감하여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CTS, 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교육1국 여름성경학교 · 고등부 수련회

- 유아, 유치부: 7/24(목) - 7/25(금) / 교회, 아가페타운(유치부)
- 유년부: 7/25(금) - 7/27(주) / 아가페타운
- 초등부: 7/21(월) - 7/23(수) / 교회, 아가페타운
- 고등부: 7/24(목) - 7/26(토) / 아가페타운

2008 여름성경학교 수련회가 은혜 중에 계속되고 있다. 금주 중에는 교육1국(유아, 유치, 유년, 초등부) 어린 학생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이는 여름 성경학교와 고등부 여름수련회가 교회와 아가페타운에서 열린다.

여름성경학교는 유아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요'를 주제로 24일(목) - 25일(금) 교회에서, 유치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요'를 주제로 24일(목)은 교회에서 25일(금)은 아가페타운에서, 유년부는 'Jump to Jesus'를 주제로 25일(금)과 26일(토)은 아가페타운

에서 27일(주)은 교회에서, 초등부는 '나는 하나님의 리더'를 주제로 21일(월)은 교회에서, 22일(화) - 23일(수)은 아가페타운에서 각각 열린다.

또한 고등부 수련회는 'Powerful Youth'를 주제로 24일(목)부터 26일(토)까지 3일간 아가페타운에서 열린다.

무더운 여름, 여름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하여 서울 교회 모든 어린이, 학생들이 말씀 안에서 잘 양육 받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힘찬 젊은이들로 자라나도록 기도한다.

영화 '크로싱' 탈북자 문제 정면으로 다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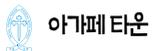
북한 구원과 탈북자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관람요망

얼마 전 개봉한 영화 '크로싱'이 북한과 탈북자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 대한민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영화 크로싱은 탈북자들의 실상을 그대로 영화화한 것으로 북한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관람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영화를 본 젊은

이들이 북한과 탈북자들의 실상을 바르게 알고 난 후 더욱 가슴 아파하며 뜨거운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

우리교회도 북한구원운동(대표회장 이종운 목사)과 함께 성도들의 관람을 장려하기로 하였다.



아가페타운

아가페타운 휴양림 등산로 '비아 돌로로사'

이찬호 집사(필그림 산우회 등산대장)

하나님께서 아가페타운 옆 나무숲속 등산로를 주셨습니다. 우리교회 필그림 산악회(회장 김영주 집사)는 그 동안 등산로 정비작업을 마치고 등산코스에 안내리본을 달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최고의 유산소 운동이 되어질 휴양림 등산길의 이름은 이종운 목사님께서 '수난의 길(Via Dolorosa: 비아 돌로로사)로 지어주셨습니다. 수난의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장소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열네곳에서 수난을 당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 등산로의 길목마다 걸어놓은 리본과 표지판을 보며 걸어 올라가는 숨결 따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걷기 바랍니다.

등산시간은 30분에서 2시간 이내로 본인의 건강에 맞추어 등산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오르기 전에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기도로 출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산행 중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어서 쉬는 것은 될 수 있는 한 금해주시고 초콜릿과 과일을 섭취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등산로는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코스 등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회 사무국으로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답고 훌륭한 등산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육 간에 강건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합니다.

(사진 : 정동호 집사)

- 물 자 절 약! -

우리의 후손을 풍요롭게 합니다

최근 100년 사이에 급격한 산업화로 전 세계 인구 증가속도는 인류역사상 그 어느 때 보다 급격하게 빨라지고 사망률은 의학의 발달로 급격하게 줄어 인구와 한정된 자원으로 인한 각종 국제문제가 시시각각으로 야기되고 있다. 전쟁과 기근의 소식, 유가상승, 지구온난화, 태풍, 가뭄 등으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있고 전 세계에서 유류소비가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자원은 '한정된' 것이다. 석유도 다 쓰고 나면 더 이상 지구상에서는 구할 방법이 없다. 물도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신 후 지구에 주신 한정된 물을 계속 순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지하자원 역시 마찬가지이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나라, 너무 오염이 되어서 밭 디딜 곳이 없는 나라, 이런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할 것이며, 누가 살려고 할 것인가? 이민을 가면 될까? 누가 우리를 받아 줄 것인가? 우리는 자칫 국제 미아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정답은 명확하게 나와 있다.

바로 절약이다. 이것 말고는 다른 해법이 있을 수 없다. 절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뿐인 지구를 사랑하고 지켜 생육하여 번성하고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지구를 회복하는 하나뿐인 방법이다.

옛 속담, 물 쓰듯이 한다는 말은 이제 버려야 할 단어이다. 물과 석유는 황금처럼 보고 귀하게 여기고 아껴써야 한다. 한 장의 종이도 나무를 베어 만드는 것이므로 즐겨 이면지를 활용하고, 내 머리 위에 있는 전등을 켜는 전기 역시 환경과 파괴와 지하자원을 대위 야만 나오는 귀한 것임을 알고 절약해야 할 것이다.

여름철에는 에어컨 온도는 최대한 높게 설정하여 전기를 절약하고, 수도물은 최대한 적게 나오도록 조절하여 사용하고, 겨울철에는 내의를 입어 난방비와 가스, 석유 사용을 줄이고 자가용 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전거와 같은 친환경적인 운동수단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등년부터 먼저 작은 절약을 실천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다.

절약을 실천하고 바르게 가르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좀 더 풍요롭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들:

1. 엘리베이터 타기보다 계단 걷기
2. 전기 절약 위해 전등 하나 끄기
3. 기름 절약 위해 대중교통 이용하기

(편집부)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초대

하나님 나라와 다음 세대 부흥!

· 7/24(목) - 7/25(금) 교회

최정순 권사(유아부 부장)

· 7/25(금) - 7/27(주) 교회 · 아가페타운

최광성 집사(유년부 부장)

· 7/21(월) - 7/23(수) 교회 · 아가페타운

우지원 집사(초등부 부장)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시고 사랑해주시는 서울교회 유아부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요'를 주제로 7월 24-25일에 서울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의 문을 활짝 엽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의 초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아부 어린이로 '쑥쑥' 자라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가정 속에서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기뻐하는 믿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다음 부흥세대의 주인공이 자신임을 알게 하고 어린 자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기뻐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유아부 선생님들은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섬길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좋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깨닫는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유년부 2008년 여름 성경학교는 'Jump to Jesus'라는 주제로 7월25일-27일에 서울교회와 아가페타운에서 1박3일간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였습니다.

25일에는 유년부를 지도하시는 장석남목사님과 영어예배부 Joshua Cho 목사님 부부의 인도로 English Bible Camp가 진행됩니다. 영어 십계명 Chant 익히기, Bible Land 탐험, 등 영어 체험을 통해 복음의 내용을 익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후에는 아가페타운으로 이동하여 Camp Fire, 기도회, 코너학습, 모세의 성막체험등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또한 신나는 물놀이를 하며 즐겁게 교제하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유년부에 참여하지 않는 어린이와 주변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어린이를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초청합니다.

초등부는 '나는 하나님의 리더'라는 주제로 7월 21부터 7월 23일까지 교회와 아가페 타운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개최 합니다.

가나안 땅에 회의적이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확고한 믿음과 담대한 용기를 가졌던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처럼 사람이 어떤 꿈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성품과 인격이 달라집니다.

저희 초등부 교사들은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학생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 리더십과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신 아가페 동산에서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질서와 협동정신을 배우고 체험하는, 산 교육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되자

7.28(월)~30(수) · Agape Town

김시환 집사(중등부 부장)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되자'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중등부 수련회는

1. 분명한 주제와 철저한 준비

주제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기획, 개발과 함께 흥미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 필요성 및 가능성, 각색 등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는 프로그램으로 준비됩니다.

2.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영적 갈급함이 채움 받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으로 새롭게 변화됩니다.

이번 수련회의 저녁부흥집회는 중등부 찬양팀의 찬양과 특히 성령에 사로잡혀 말씀을 전하실 이태훈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을 경험하게 되며, GBS를 통해 개인적인 성경묵상과 연구의 깊이를 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거나 구원

의 확신이 없는 참석자들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3. 학습자 중심의 프로그램

이번 수련회는 프로그램 기획부터 학생회를 중심으로 학생들을 참여시켜,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어 행사 전반에 참여의 폭을 최대한 배려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습의욕과 재미를 높여 교육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 change : 간단한 역할극, 분쟁놀이, 대본 만들기 등을 활용해 스스로 주제를 탐구하고 체험합니다.

△ Quest : 성경의 내용을 코스별로 직접 체험하게 될 훈련 코스가 준비됩니다.

이 밖에도 "요리보고 성경보고" 등의 다양하고 새롭게 시도되는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Powerful Youth!

7.24(목)~ 26(토) · 아가페타운

최치순 집사(고등부 부장)

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의 도우심-Powerful Youth"를 주제로 24일(목)부터 26일(토)까지 아가페타운에서 열립니다.

서울교회 고등부 학생들이 대자연속에서 창조와 아름다움을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과 기도 중심의 생활화를 훈련받아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열방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금번 여름수련회는 팀 빌딩, 특강, 말씀과 기도 중심 생활화 훈련 프로그램,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기도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주옥같은 이종윤 목사님 특강, 끝없는 울려라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은혜의 동산, 아가페타운으로 초대합니다.

